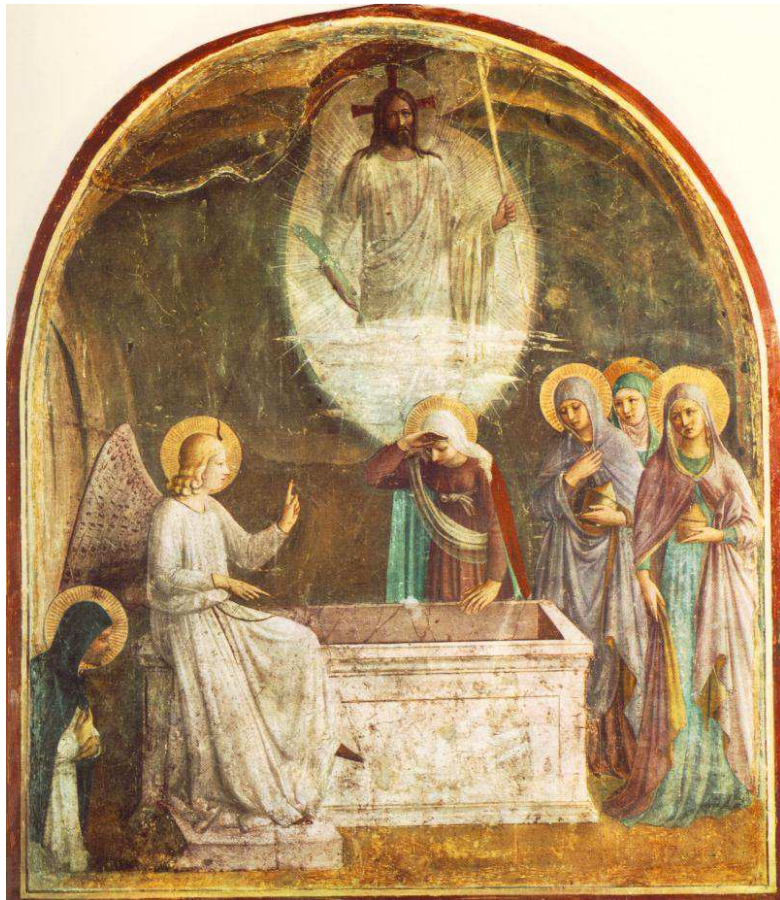


2013 3.31 예수 부활 대축일

제 1 독서 : 사도행전 10,34 ㄱ.37 ㄴ-43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께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제 2 독서 : 골로새 3, 1-4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복 음 : 요한 20,1-9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베이크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오늘로서 제가 이곳에 와서 열번째의 부활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성주간을 보내면서 이상하게 느껴지는것은, 희한하게도 성주간 전례 준비를 하는 봉사자들이 그동안 어떻게 하였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홉번씩이나 반복되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물론 새로이 시작한 봉사자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총구역장님의 이메일에 성당청소시간이 10 시에서 10 시 30 분으로 변경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는 바람에 청소시간에 늦게 오셨습니다. 마귀의 작난이라고 하면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옛날에도 무쇠 가마솥안에 솔뚜껑이 들어가 있는일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우리는 과학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제시하는 진리는 스스로가 틀렸다고 항상 반복합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이 계산해온 우주의 시간이 잘못 계산된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아톰이 물질세계에서 가장 작은 존재라고 주장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톰도 더 작은 물질로 쪼갤수있다고 주장합니다. 아톰보다도 더 작은 물질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허상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헛것을 보고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진짜세상은 저 하늘위에 있고 이 세상은 조물주가 진짜를 보고 만든 모조품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듣고 즐기는 모든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이것이 진실이고 하늘위에 있는 저것이 허상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하늘을 생각조차도 않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등등, 첨단디지털문화의 산물로 바쁘게 지내기 때문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면 아름다운 무지개가 생깁니다. 세상은 바로 그 무지개를 쫓아다니는 허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조차도 모르며 그것을 쫓아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축제를 보내면서 우리는 그 허상의 것을 보기 보다는 진품을 보아야, 명품의 모조품이 아니라 원품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빈무덤**입니다. **‘비어 있는 무덤’** 이야말로 믿음으로써 부활을 증명 하는 것입니다. 빈무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수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를 증거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성서를 잘 읽어보면 예루살렘의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흠쳐내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할까보아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경비병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의 돌을 옆으로 굴리고 그위에 앉는 모습을 보며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두려움에 까무러치고 맙니다. 이를 본 마리아 막달레나는 천사들의 분부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달려간 제자들중 먼저 도착한 제자는 무덤에 들어가지를 않았지만 뒤따라온 제자가 무덤에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봅니다. 달려간 두제자는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요한은 가장 젊었고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무식하였지만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베드로에게 교회의 수장 역할을 맡기십니다. 또한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제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사랑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뵈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먼저 도착 했지만 두려워서 무덤안에를 들어가지를 못하지만 베드로는 생명을 무릅쓰고 무덤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밖에서 울면서 무덤안에 앉아있는 두 천사에게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뒤로 돌아서는 순간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을때에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뿌니!**” 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서 전합니다. 무덤속에 들어갔던 두제자는 빈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고 합니다. 성서는 그들이 예수님께서서 죽은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봅시다. 오늘 제대를 보시면 부활초와 백합꽃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초는 300 불이나 됩니다. 물론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돈들을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바르는것을 보고 불평하였던 제자와 같이 말입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쫓고 있는지 한번 우리자신을 드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허상이고 헛된 것들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와 합장을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여서 지난번 한국방문을 하였을때에 김포의 교회 묘지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듣고 놀란것은 100 년이 지나면 묘지를 다 갈아엎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00 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이 허상인것을 생각하려들지 않습니다. 사순을 보내며 묵상중에 떠오른 것은 우리가 실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날수가 얼마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면 100 년을 살 수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 행복을 느낄수 있는 날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고 있지만 기쁨을 느낄수 있는 날은 오직 오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항상 내일일뿐입니다. 만약 오늘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 하루는 지나간 것입니다. 그 하루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하는 것은 다 허상입니다. 제 나이 50 이 되어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매일이 똑 같다고 생각들 하지만 매일매일이 똑 같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일터로 향하고 하루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드는 이 생활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인 것같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생활인 것 같지만 쳇바퀴를 돌리는 것은 다람쥐가 아니라 바로 내가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자유의 의지와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며 우리는 하루를 기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하며 고통스러운 날들로 반복되는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무언가 달라져야지!’ ‘하느님이 주신 자유의 의지와 창조적인 생각들로 오늘을 기쁘게 살아야지!’** 하며 새로운 오늘을 살아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약속 하십니다. **“ 너 또한 부활할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0,34 ~ 37 ~ 43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3,1-4<또는 1 코린 5,6 ~ 8>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까.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